

투데이 칼럼

북한 자본가들의 몰락

북한에도 호텔에서 커피를 즐기고 수입 화장품을 애용하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돈주'라고 불린다. 이른바 북한의 신흥 부자인 셈이다. 이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화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호화 생활을 한다. 이들은 다양한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기도 한다. 피자, 스파게티 등의 서구식 요리는 물론 철관 요리나 초밥과 같이 색다른 메뉴도 다양하게 즐긴다. 각종 문화·유희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건 대부분 '돈주'들이다. 돈주들은 1990년대 중 후반 배급 체계가 붕괴된 북한 시장에서 장사와 고리대금업, 밀수 등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대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국산 전자제품과 사치품 등의 소비를 즐길 정도로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 예전에 장마당 중심 영역에서 대규모 거래를 통한 대방(무역업) 형식으로 성장하면서 사업 자본 규모도 커졌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북한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위상이 변화가 생겼다. 돈주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돈주의 약 70~80%



정복구 본설위원

가 몰락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장사할 물건이 부족해진 데다,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와 관리 강화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통으로 돈을 벌어난 돈주들이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년 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원자재와 식량은 물론 각종 생활품 등의 수입이 급감한 것이 큰 이유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과 최근 소식이 닿은 돈주 역시 막막한 심정을 전했다. 그런데 이들의 숨통을 죄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북한 당국의 통제와 관리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비교적 자율

적으로 운영돼왔던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시기 본격화된 양곡 판매소 운영이다. 과거 돈주들이 중국산 쌀과 옥수수 등을 매점매석해 식량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당국이 나서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양곡 판매소를 국가가 직접 운영해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판매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반 상인들과 돈주들이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 주도의 양곡 판매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북한 내 생산되는 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수입 불량도 여전히 부족해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판매하는 실정이다. 공장이나 기업소 등에 노

동자로 등록되지 않은 주민들은 식량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식량 분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통제를 벗어나 커지고 있는 사적 재산을 억제하고 돈주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 경제활동이 커지는데 따른 주민 사상 이원화 변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코로나19 시기 시장 통제와 함께 반동사상문화해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법안들을 제정했다. 지난 8월, 북한은 3년 7개월 동안 닫았던 국경의 일부를 공식 개방했다. 하지만 불자 이동이나 인적 왕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돈주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는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결국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돈주들은 한때 그들의 자금 흐름이 북한 경제의 흐름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의 몰락이 북한 사회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설

한국인의 행복지수 극히 낮아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란 본인이 느끼는 즐거움의 합이다.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143개 나라 가운데 52위다. 한 국가의 행복지수는 국가의 경제적인 등수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인 규모나 수준에 비해 행복감이 매우 낮다. 자유도란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즉 선택을 하는 것이다. 행복감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누구나 본인의 취향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평가를 하고, 이견 틀렸으니 저렇게 하라 등 지적을 계속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요즘 갈수록 한국 사회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로 일상이 돌아간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부닥치는 일상의 삶에서 반사되는 돈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때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뭐가 나를 신고할 것 같고, 어떤 위협이나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회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 과도한 경쟁은 청년들의 고뇌를 불러왔다. 한정된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쫓아갈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생겨난다. 행복감과 가장 직결된 것은 사람과의 사소한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사회를 단박에 만들 수는 없다.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야 한다. 공경과 상식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출생률 최저치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기록을 1년 만에 갱신했다. 역대 1월 중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최저 기록이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 속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658명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집계 시작 이래로 약 40여 년 만에 역대 2월 출생아 수 최저치가 나온 것이다. 기존 최저 기록은 1만 9,939명이 태어난 지난해 2월이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도 역대 1월 기준 최저치를 찍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지난해 0.72명으로 간신히 사수한 0.7명의 합계출산율 벽마저 올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혼 건수도 다시 줄어들어 1

월 11.6% 증가했던 결혼 건수는 2월엔 전년 동월보다 5% 줄었고, 이혼 건수는 늘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도 인구 구조와 연관된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향후 적자 폭을 대폭 늘리게 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 출생아들은 생애 평균 월급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60년대 생의 평균 보험료율이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한국, 이젠 정말 벼랑 끝"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출생아 수의 벼랑 끝 감소는 국가 존망의 문제다. 이 대로는 안 된다. 말로만 위기라고 아우성 칠 일이 결코 아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공동 기자회견 후 손 맞잡은 프랑스-세르비아 정상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알렉산더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이를 일정으로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부치치 대통령과 핵에너지, 프랑스제 리튬 전투기 공급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당선되면 공화당 인사도 내각 기용"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조지아주 배너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공화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할 방침"이라며 "이것이 미국 국민에게 이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